

##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 Brave Maritime and Geogas fuel growing LPG carrier orderbook at Hyundai Mipo

현대미포조선이 Geogas Trading과 Brave Maritime으로부터 40,000CBM급 LPG운반선을 2척씩 수주했다고 보도됨. 현대미포조선이 4월 13일 공시한 LPG선 수주 2척분의 발주처가 Geogas Trading이라고 보도됨. Brave Maritime으로부터 수주한 LPG선의 척 당 선가는 4,700만달러 이상이며 납기는 2023년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Avance Gas confirms expansion of ammonia-ready VLGC orderbook

대우조선해양이 Avance Gas로부터 95,000CBM급 이중연료추진 VLGC 2척을 수주했다고 보도됨. 척 당 선가는 7,890만달러이며 인도 기한은 2023년까지라고 보도됨. 이로써 Avance Gas의 대우조선해양 발주 잔량은 4척에서 6척으로 증가했다고 보도됨. 해당 선박은 암모니아 연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조될 예정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Dry bulk market continues to rally on China's insatiable appetite for iron ore

건화물시장이 중국의 철광석 수입물량 증가에 따라 개선세를 지속하고 있다고 보도됨. BDI(Baltic Dry Index)는 전일대비 40p오른 2,750p를 기록했다고 보도됨. 철광석 및 철강 가격이 10년 최고 수준으로 오르는 등 시황 분위기가 좋으며, 중국 내 건설경기 시장 개선에 따라 2분기 뿐만 아니라 연 내 건화물 시장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보도됨. (TradeWinds)

## LNG 인프라 투자 말라? 세계은행 틀렸다

SEA-LNG가 LNG연료 사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쓴 소리를 한 세계은행의 견해에 대해 전적으로 잘못됐다고 반박함. SEA-LNG는 이미 독립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LNG연료가 기존 연료 대비 온실가스를 23% 줄일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세계은행은 메탄슬립에 대한 잘못된 자료와 실험을 동반하지 않은 이론적인 접근 방식으로만 접근한 리포트를 공개했다고 비판함. (선박뉴스)

## 해운대 앞 바다를 풍력 단지로

해운대 청사포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위원회가 해상풍력사업에 찬성하는 입장을 밝히고 해운대 구의회의원들에게 사업 지지와 협력을 촉구했다고 보도됨. 청사포 해상 풍력단지는 40MW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부산지역 신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 KAI "항공 스마트 제조 시스템 구축에 5년간 985억 투자할 것"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국내 항공산업 제조분야의 스마트 플랫폼과 생태계 구축에 향후 5년간 985억원을 투자한다고 22일 밝힘. KAI는 기존 스마트 공장인 A350동에 인공지능(AI)을 반영해 고도화하는 한편, 자동화중심의 스마트 설비를 고정익동, 회전익동, 부품동, 산청사업장 등 전 사업장에 반영시킬 계획이라고 보도됨. (조선비즈)